

신행수기 당선작(관음종 총무원장상)

나의 탈바꿈 ② · 끝

김형신 <대구 달서구 상인동>

연 마후 또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다. 토요일에 학원에 간다고 미리 갔다는 것이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선생님께서 잘 부탁드리고 막내도 오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야단치려는 순간 이것 또한 놓치는 마음이지, 또 속는거지 하며 막내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나에게 절을 할때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했고 선생님께서 온 전화 이야기, 말하지 않고 지켜 보았던 이야기를 다 풀어 놓았다. 이야기 도중에 눈물이 줄 줄 흘렀다. 나도 울고 막내도 울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았다. 막내도 나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그 일이 있던 다음부터는 차츰 얼굴이 펴지고 대답도 예, 아니오 단답형에서 자상하게 설명도 하고 다정하게 대한다. 예전같이 귀엽고 착한 아들로 돌아왔다. 이 사람스러운 아들을 한 생각에 눈물 흘린다고 생각하니 부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모임에 나가보면 대다수가 남편에 대해 놓칠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것이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이 집과 저 집이 별로 다른 곳 없듯이 나 또한 놓치는 마음이 없지 않다. 나는 결혼해서 곧바로 임신과 출산으로 연년생이다 시피한 3명의 아이를 키우느라 뒤통이 뻐지기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다. 남편에 대한 불만과 적연치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따지고 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아이들이 조금 크고 한숨 돌릴

때쯤 되니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부부 싸움도 곧잘 했다. 그러다가도 적당히 넘어갈 때도 있고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잘 맞추어 살려고 했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끔 구티도 당하고 욕설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의심중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보니 나 자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일이 쌓이다보니 자연히 방이 울 수 밖에 없었다. 항상 뒷풀이 땀기고 권투통이 생기고 속이 매스맙고 심하게 어지러웠다. 그러다보니 눈의

남편을 미워했지만 남편이 미운게 아니라 나의 욕심과 집착 아상이 문제인 걸 알았다

촉점이 맞지 않아 사물이 똑똑히 보이지 않고 흐려 보였다.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고 내과에 가도 이상이 없다고 신경정신과에 가라고 했다. 거기에서도 별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 래도 아픈 증상은 그대로였다. 집을 나가보기도 하고 남편과 헤어질 생각도 했지만 나가봐야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았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견주며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만족하고 필수복

신경을 쓰지 않고 취미생활과 운동으로 재미를 붙여가니 세월은 잘도 갔다.

자난해 막내가 탈바꿈 무렵 남편과 아주 크게 싸웠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여지없이 울겨졌고 큰 결단을 내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서 해결 못할 것도 없으니 공부의 재료로 삼아보자고 생각했다.

나의 생활에서 회하는 남편과 나의 관계였으며 생각날 때마다 "주인공, 당신이 이렇게 벌여 놓았으니 내가 이걸 고" 하며 밀겨놓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지나 지켜보기로 했다. 그 기간

이 너무 길었지만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던 또 반복된 고통속에서 헤어 나지 못하니 남편에 대한 내 길은 마음속이 깨끗하고 투명해질 때까지 지켜보리라 하고 관하여 기다렸다. 처음엔 미운 마음 때문에 온갖 나쁜마음을 가졌고 그러면서도 관하고 그러니 또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 그것도 아니지 하며 또 관하니 용서가 되었다. 다음엔 억지로라도 뒷모습에 대고 말없이 "당신 사랑해" 하며 무언의 통신을 보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유행가의 제목처럼 남편과는 "잘못



그림 · 문병성

“
곤충이 허물을 벗으면 새로운 모습이 되듯 나도 마음의 허물벗고 참나로 진화 해야지
”

파일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내 운동의 걸걸질이 다 일어나는 것이었다. 놀라서 다리를 보니 걸걸이 부풀어 오르고 또 팔을 보니 번지면서 걸걸이 다 일어나는 것이다. 꿈속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일어나니 초파일 새벽이었다. 초파일과 그 이튿날까지 선원에서 뒷마루를 하고 그 꿈을 되짚어 보았다. 곤충이 허물을 벗으면 한 단계씩 새로운 모습이 되듯이 나도 마음의 허물을 벗고 또 벗어 지금의 나에서 새로운 참나로 진화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은 스님의 가르침과 도반들 덕분인 것 같다. 모든 인연들에게 정말 감사한다. 푸른 하늘과 땅과 숲사이로 스쳐지나가는 바람소리까지도.

본노와 욕심, 아만, 집착, 모든 내 두명의 걸걸질을 한결 벗기고 나니 이렇게 출가분할 수가 없다. 벗어놓은 만큼 내 마음은 흥만해짐을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좋고 나쁨이 내 마음의 작용임을 알고나니 희희와 감사의 나날이다. 잘못된 것에 대한 참회기 계속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작은 일에 감사함도 절로 생긴다. 한 생각 바꾸기가 이렇게 어렵고 바꾸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뒤늦게 후회가 되는 것은 조금 일찍 인연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랬다면 내 세 아이와 남편에게 좀더 좋은 어머니와 아내가 되었을텐데. 지금도 늦지 않으니 이를 있을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된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고정된 것이 없다고 했지 하며 자꾸 통신을 보내고 관하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왜 미워했는지를 묻고 들어갔다. 남편은 그 자리 그대로인데 나에게 이렇게 안해주시니 믿고 이렇게 하니 속상하고 그것들에 매여서 뒤범벅이 되다니, 그것도 내마음의 작용인 것을...

나 는 내 남편을 미워했지만 남편이 미운게 아니라 욕심과 집착, 아상 때문이란 걸 알았다. 상대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또는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워 한다는 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게 됐다. 그리고 비움도 사랑도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그 둘 다를 포용해 보자고 생각했다.

긴 시간이 지나갔다. 이런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 바라는 마음에서 위해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사월초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전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아울러 사찰의 강전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전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 재질 : ASH(느릅 원목)
- 규격 : 가로720x세로340x높이320(단위mm)
- 가격 : 8만5천원



● 구입문의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佛 반지

반야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智力), 의력(毅力), 행력(行力), 참력(耐力), 강력(剛力), 지력(智力), 세력(勢力), 의력(毅力), 변력(變力), 색력(色力), 신력(神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불발력(不沮力), 정마력(精魔力)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卍)의 공력으로 보살의 16대력을 표현하였으며 대부리의 팔각을 팔정도를 말하는 불자들의 자긍심을 표현

종류명: 반야반지
재질: 금, 규석(18K, 14K-1.5돈)
가격: 18K-W 130,000, 14K-W 120,000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수행자의 자긍심이 함께 합니다.

- 불교를 상징하는 공자에 16개의 규격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고
- 대부리의 팔각은 팔정도를 수행하는 불자들의 자긍심을 새겼습니다.



http://mall.buddhapia.co.kr

원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 감각을 조화시킨 아름다운 원등입니다.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한 재질로 장엄의 미를 담았습니다. - 정성을 다해 제작한 이 전통원등은 꼭 소장해야 합니다.

점등은
활짝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사용하는 팔각등입니다.

점등 이 선등은 기술 특히 출원 중입니다.

· 팔상성도 장엄 팔각등(원색 칼라)



· 반야심경 장엄 팔각등(원색 칼라)



- 규격 : 대 13cm
- 가격 : 2,400원
- 규격 : 표준 11cm
- 가격 : 2,200원

● 영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와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리적인 힘에 찢어지거나 정대비 속에서 걸고 찢어지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층모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볼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처 : 불·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택배 발송
- ※ 촛대, 등걸이, 이름표 포함

조립등

조립등은 빈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흠에 맞추어 넣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 봉축 장엄팔각등(원색칼라)



● 만다라 장엄 팔각등(원색칼라)



- 규격 : 표준 11cm
- 가격 : 2,300원
- 200동 이상 주문시 10% 할인(2,070원), 사찰명 인쇄
- 500동 이상 주문시 20% 할인(1,840원), 사찰명 인쇄